황영성 60년 화업 반추…전남도립미술관 초대전 성료

‘우주 가족이야기’ 주제… 3달간 2만5000여명 관람

회화·설치 110여점, 최신작 ‘세가족 은빛가족’ 등 인기

그의 그림은 평화롭다. 그림은 하나의 울타리이다. 초가와 황소, 가족이 ‘하나’를 이룬다. 거기에는 누구도 소외된 이가 없다. 모두 대등한 관계여서 위계 또한 없다. 그러므로 화폭에서 자연스레 생명공동체를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작가 황영성 화백. 그는 평생 가족을 모티브로 일관된 화업을 일궈왔다. 최근의 작품에서는 그 가족의 범주는 무한대로 확대된다.

작가는 대자연의 뭇 생명들까지, 그 너머의 우주까지도 하나의 가족으로 상정한다.

최근 막을 내린 전남도립미술관의 ‘황영성 초대전: 우주 가족 이야기’(지난 11월 14일~2월 18일)는 황 화백의 60년 화업을 반추하는 의미있는 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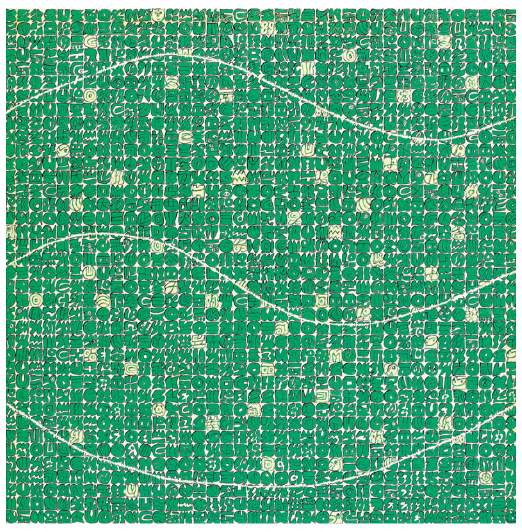
회화, 설치, 아카이브 자료 등 모두 110여 점을 선보인 전시에서는 ‘만유공생 세계관’을 추구해온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톺아볼 수 있었다.

19일 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 따르면 ‘우주 가족 이야기’전 관람객 수는 약 2만5000여명에 달했다. 미술관이 광양이라는 전남 동부에 자리하는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전시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작 ‘세가족 은빛가족’ 등의 작품 앞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오래도록 머물렀다는 후문이다.

황 화백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시회가 끝나 서운한 느낌도 들고 그렇다. 그럼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돼 만족한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업을 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 황영성 초대전 ‘우주 가족 이야기’가 지난 18일 성료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Round Family’



‘가족 이야기’

그러면서 “금년에는 용의 해인 만큼 용을 중심으로 가족과 용이 결부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며 “청룡의 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색채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알려진 대로 황 화백이 ‘가족’에 천착했던 것은 개인사적인 ‘아픔’ 때문이다. 1941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그는 6·25 전쟁 무렵 남으로 내려와 광주에 정착했다. 그의 작품에서는 이산의 아픔을 깊이 감내하며 작품에 몰두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이 환기된다.

‘모든 작품에는 페르소나가 숨겨져 있다’는 고전적인 명언을 환기하자면, 그림에 곧잘 등장하는 소의 이미지에는 작가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 순박한 소의 눈망울은 우직하게 화업의 여정을 이어왔던 지난한 세월을 담고 있다.

그는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65년 나주 영산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후 국선 입선과 6차례 특선, 국전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화단의 주목을 받는다.

이번 전시는 ‘우주 가족 이야기’라는 큰 테마를 축으로 6개 소주제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자연주의 구상회화’(1950년대 말-60년대), ‘회색빛 향토서정’(1970년대), ‘녹색 들녘과 가족’(1980년대), ‘이국여행 고대문명 탐방’(1990년대), ‘만유공존 우주가족’(2000년대 이후), ‘멈출 수 없는 화업정신’(최근작) 등이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여러 작품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려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된다는 점이었다. ‘Family Story’, ‘Round Family’, ‘단색 가족 이야기’, ‘새가족 은빛가족’, ‘큰 가족도’ 등이 지지하고 지향하는 것은 모두 ‘가족’이다.

싱그러운 기운을 품은 녹색, 안정감을 품은 회색 등 천지자연 인간과 동식물이 한 가족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작품이 발하는 은은한 미덕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같은 크기의 단색조 선묘나 색을 채운 도상들이 압축되고, 화폭의 일부가 다른 색으로 대체되는 조형적 구성은 오늘의 황 작가를 있게 한 요인들이다.

그는 “체력이 조금 부친 것은 사실이지만 잘 조절해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할 생각”이라며 “창작에 대한 열의는 청년 시절 못지않다”며 웃었다.

한편 이지호 관장은 “이번 전시는 만물에 대한 포용과 인류애의 가치를 담은 주제와 작품들로 구성돼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작가의 작품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지를 향해 ‘흐르고 흐르고 흐르다’

고영종 개인전, 3월 14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영원에 가까운 것 가운데 몇 가지를 꼽으라면 시간과 물이 아닐까. 흐른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멈추지 않는 것은 변화를 발현한다. 변화 속에서 새로움이 싹 트고 그 새로움은 창조를 견인한다.

고영종 작가의 작품 속에 흐르는 ‘물’은 물리적인, 자연적인 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마도 작가 또한 그것을 염두하고 화폭에 물의 이미지를 투영했을 것이다.

갤러리생각상자(관장 주홍)에서 진행중(3월 14일까지)인 고 작가의 ‘흐르고 흐르고 흐르다’전. 눈에 닿는 화폭의 풍경이 시원스럽고 장엄하다. 가장 본질적인 물의 특질을 작가는 흑백의 물감과 붓으로 구현했다. 어쩌면 작가의 내면은 고여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른다. 더러 멈추지 않고 미지의 곳을 향해 내달리는 물은 창작을 향한 영감의 원천으로 환기된다.

전시작 가운데 눈길을 끄는 작품은 ‘시무지기-검은 폭포’. 작가에 따르면 ‘시무지기’는 비가 오면 무지개 셋이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작가가 그곳에 갔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흐르는 물을 일련의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인 듯 하다. 장구한 물보라는 없지만 검은색의 거대한 흐름은 그 자체로 영원불멸의 ‘자연의 숨결’로 다가온다.

주홍 관장은 “이번 전시는 흐름이 정지된 물로 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적 연결과 멈춤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고영종 작가의 이색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시무지기-검은 폭포’

헌편 고 작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영원한 것은 없다. 젊음의 아름다움도 시간 속에 스러지며 굳은 약속의 말 또한 기억 속에 희미해진다”며 “물은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많이 닮아있다. 때론 잔잔하게, 때론 거세게 자신만의 흐름으로 흘러가며 세상을 바꿔버린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품격 실내악의 향연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Ⅱ’ 3월 13일 광주예술의전당

바이올린 이종만

첼로 이후성

피아노 박은식

지난달 선보였던 관현악 실내악 공연에 이어, 스트링과 피아노로 가득 채운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체임버 시리즈Ⅱ’를 3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광주시향 악장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종만과 첼리스트 이후성, 피아니스트 박은식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4번’으로 막을 올린다. 두 개 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이지만, 베토벤이 ‘자유로운 소나타’라는 제목을 붙일 정도로 자유분방한 환상곡에 가깝다. 이어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도 울려 퍼진다.

‘피아노 삼중주 엘레지 2번’은 지난해 탄생 150주기를 맞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이다. 엘레지(elegy·비가)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세상을 떠난 차이콥스키를 위해 그가 20세에 만든 추모곡이다. 소나타 형식의 1악장과 6개의 변주가 담긴 2악장, 역동적인 3악장 등의 구성이 이목을 끈다.

전당 모성일 팀장은 “실내악 시리즈의 두 번째 공연으로 베토벤,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음악사에 이름을 남겼던 세 음악가의 실내악곡을 감상하고 그 진수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1만 원. 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싸움 놀이, 이어온 천년 이어갈 천년’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보존회
23~25일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에서 행해지는 전통 대보름놀이 ‘고싸움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돼 있다. 1983년부터 매년 광주에서 고싸움 축제를 개최하며 대표적인 지역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사)광주칠석 고싸움놀이 보존회가 올해 41회 고싸움놀이 축제를 연다. 올해 행사 주제는 ‘고싸움 놀이, 이어온 천년 이어갈 천년’으로 오는 23~25일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23일(오후 1시~밤 11시)에는 전통민속놀이 체험 및 경연대회는 물론 광산농악보존회의 공연 ‘광산농악’, 주식회사 도적단의 ‘코믹 마임쇼’가 진행된다. 메인 행사로 주제공연과 고싸움놀이 시연, 달집 태우기 등도 볼 수 있다.

24일 오전 11시부터 공연팀 대촌 얼씨구가 사물놀이, 난타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같은 날 12시 231쇼는 ‘코미디 서커스 퍼포먼스 멋’을 선보이며, 놀이패 신명의 ‘대동 한마당: 강강술래’도 펼쳐진다.

이외에도 25일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창작작품 ‘호시탐탐’은 ‘호랑이가 때를 만나 즐거움을 찾다’라는 의미로 무등산 호랑이의 활기찬 기운과 복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국가무형문화재인 광주 고싸움놀이. 〈광주칠석 고싸움놀이보존회 제공〉

비롯해 다함께 즐기는 대동 큰 줄다리기, 밀양 백중놀이, 남사당 줄타기 등 전통 연희놀이가 우리 신명과 전통으로 시민들을 찾아온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정재일 대표는 “정월대보름과 맞물려 진행하는 이번 축제는 현대에는 생소할 수도 있는 우리 전통 연희놀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다”며 “각박한 시대에 고싸움이 주는 경쟁과 화합의 가치가 많은 시민들에게 긍정적 의미로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고싸움놀이보존회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진행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소설가협회 제16대 이사장 나주 출신 이상문 소설가

“작품 발표 확대 무크지 발행에 역량 집중”

“회원 작가들의 작품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새로운 무크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협회에서 매달 1권씩 12권 작품집을 발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회원들 작품을 게재하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 제16대 이사장에 선임된 나주 출신 이상문 소설가(77·사진)는 무크지 발행 등 작품 발표 지면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74년 발족한 한국소설가협회는 소설가로 구성된 문인단체이며 회원만 1300여명을 두고 있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이 신임 이사장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지면확장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안들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원들의 교류와 친목 도모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또한 문학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봄, 가을 개최하는 세미나를 충실히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가능하다면

국제 세미나도 개최해 문학적 역량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존 해왔던 독서대전을 시민 친화적으로 확장해 더 많은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모든 일들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라 회원들과 협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3년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에 단편소설 ‘탄흔’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지금까지 장편 ‘황색인’ 외 소설집 ‘영웅의 나라’ 등 모두 40여 권의 소설집을 펴냈다. 대한민국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노근리평화상 문학부문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